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 관련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조 윤 주

최 연 실[†]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실시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 총 4,275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상담을 경험한 사람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중간 이상의 필요도를 느끼고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에 따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북미, 유럽, 호주 출신의 남성들은 가족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남미, 아프리카, 중국, 일본과 조선족을 제외한 동남아 출신 남성들은 가족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할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가족상담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02-2287-5317 / E-mail: yschoi@smu.ac.kr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도 도입되면서부터는 그 숫자가 급증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서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의 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결혼관도 변화하였으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의 수도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를 거듭하였다.

2012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에 의하면, 2005년에 국제결혼건수는 42,356건으로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의 13.5%로 정점을 찍은 후에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국제결혼건수가 29,762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9.0%까지 감소하였다.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건수도 2005년에 11,637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3.7%, 국제결혼건수의 27.5%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1년에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건수가 7,497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2.3%, 국제결혼건수의 25.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결혼건수의 1/4에 해당하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근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중앙, 지방정부의 정책을 보면 결혼이민자가 당연히 여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정책의 초점과 비중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중앙정부의 정책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로 지정되어있고, 사업대상도 여성결혼이민자로 사업의 내용도 이들에게 한글 교육, 아동양육지원, 가족상담, 한국문화교습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체 국제결혼인구 중 외국인 남성의 비율도 1/4에 해당하는 만큼 그들에 관한 지원도 절실한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모든 관심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수행이 필요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아동양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었는데,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다문화가족 내에서 외국인 남성도 취업,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성역할태도에 대한 갈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강유미, 신혜중, 2010; 설동훈, 이해경, 조순남, 2006; 양명숙, 이해선, 2011).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설립되었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본격화시키고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대책, 생활안정대책 및 사회통합대책, 사회참여촉진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등이 수행되어 왔다(여성가족부, 2006).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나는 가운데(김유경, 2010),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도 점차 다양화되고 질적 수준의 제고가 논의되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을 이끄는 방향 중 다문화가족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

해보면 강조되는 것이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 제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확보, 가족기능을 강화해 가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을 받는 복지서비스 중의 하나가 가족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에 개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도가 가족상담이기 때문이다(최연실, 2011). 가족상담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내의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를 결국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도와주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별상담보다 더 효율적인 상담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김경신, 2009).

최근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가족상담이라는 연구들(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김정현, 2010;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명선, 장은애, 2010; 정상기, 정운수, 2010)과 가족상담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전국의 복지관, 각종 사회기관들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나 사회서비스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연구들(변화순 외, 2008; 이선주 외, 2008; 장미혜 외, 2008)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 대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부로 단편적으로 가족상담을 다루었고, 또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일환으로서 부분적으로 가족상담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으로 다문화상담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지만(김태호, 1995;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한재희, 2011), 이들 연구들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상담을 논하고 있고 또 상담과정에서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적 측면에서 가족상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최연실, 2011).

다문화상담이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상담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2010)의 다문화상담연구 현황에 의하면, 2008년까지의 상담현장에서 벌어지는 상담활동을 다룬 연구는 그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이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서, 국제결혼가정으로만 이루어진 연구는 불과 30건뿐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관련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박정윤, 2009; 최연실, 2011), 다문화상담자의 문화적 인식이나 역량과 그에 대한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노충래, 2011; 송기범, 2010; 주은선, 이현정, 2010), 그리고 다문화상담과 관련된 연구들(강기정, 강복정, 이무영, 2011; 송미경, 2008; 양승민, 2008; 한재희, 2011)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그 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이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을 주요한 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상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에서는 일반적 의미의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결혼이주여성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적 개입은 이주외국인의 적응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선주 외(2008)는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를 다룬 연구에서 이들이 국제결혼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남편들은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러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밝혔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외국인 남편의 한국인 부인과의 주된 결혼이유는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인데(56.2%), 여성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나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22.3%)이라고 조사되었다(설동훈, 이해경, 조순남, 2006). 반면에,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국제결혼 동기는 경제적 이유(41%)와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73%의 여성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했다고 한다(설동훈 외, 2005).

이러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기존 대다수 다문화가족의 연구대상이었던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5)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심해지면서 자국의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게 되자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얻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각국에 확산되면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킨 것도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한국으로 오게 된 결혼이주여성과 다르게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자연스럽게 한국여성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혼동기에 대한 차이는 결혼 후 형성된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성과 남성과의 결혼은 결혼동기에서 그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에게 대한 연구도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출신국, 연령, 학력, 배우자 학력, 월평균소득, 나이 차이, 결혼지속년수, 자녀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 외(2010)의 연구에서는 출신국에 따라 다문화가족 외국인 성원이 가족상담 필요성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현수와 최연실(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관련 있는 변수로 제시된 바 있다. 둘째, 이 변수들은 논리적으로 가족상담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즉, 한국어 능력은 상담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체가 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상담을 받게 만드는 기본조건을 형성하며, 가족상담 경험 유무는 가족상담에 대한 친숙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며 또 그 효과성을 통해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작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상담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축적하

고자 하며, 특히 향후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과 가족들을 위한 가족상담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에 따른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2009년 7월 21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각 가정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에 근거한 전국 다문화가족 수 154,333가구 중, 이 실태조사를 통해 현지 조사원으로부터 확인된 13,702가구에서 남성 4,27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이전의 연구들을 아우르는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사항들과 출신국, 연령, 응답자와 배우자의 학교수준, 직업관련 사항,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혼인상태, 결혼지속년수, 응답자와 배우자의 결혼 횟수, 배우자를 만난 방법,

자녀관련 사항, 원가족과의 사항, 의논상대, 여가 취미생활에 관련된 사항, 사회적 지원서비스관련 효과와 필요성 인식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조사자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우위를 점한다고 할 것이다.

측정도구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가족상담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매우 필요하다’부터 ‘전혀 필요하지 않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과 배우자의 학력, 월평균 소득,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결혼지속년수, 자녀수에 따라 가족상담 필요성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능력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 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항에 말하기, 읽기, 쓰기의 총 3영역으로, ‘매우 잘한다’부터 ‘매우 서툴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 별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관계에 있어 각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 초 4개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구성되었다.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까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을 역채점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가족관계와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상담 경험 유무

가족상담 경험 유무는 가족상담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가족상담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상담 받은 경험 있음’과 ‘상담 받은 경험 없음’으로 구분한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Window 16.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ANOVA),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표집된 다문화가족 중 외국인 남성들인데,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들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조선족이 48.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31~40세가 38.1%, 41~50세가 32.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고졸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도 32.0%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12.3%으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한국거주기간은 1~5년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년이 31.9% 순이었다. 한국에 온 목적은 결혼 28.5%, 취업 26.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2.0%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39.5%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199만원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16.3%으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다. 배우자 연령은 31~40세 38.7%, 41~50세 25.9%, 배우자 학력은 고졸 37.5%, 대졸 26.0% 순이었다. 배우자 직업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3.5%로 많았다. 이들의 결혼지속년수는 1~5년이 40.2%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없는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고, 1명이 27.3%로 그 다음 순이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의 전반적인 경향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3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수와 최연실(2012)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와 상담요구도 3.20점보다 낮아 남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275

구분		n(%)	구분		n(%)
출신국*	중국(조선족)	2,082(48.7)	한국 국적 취득	예	2,223(52.0)
	중국(한족)	398(9.3)		아니오	1,689(39.5)
	일본	209(4.8)		무응답	84(2.0)
	아시아 기타	700(16.5)	월평균* 소득	없음	39(0.9)
	북아메리카	466(10.9)		100만원 미만	779(16.3)
	유럽	183(4.2)		100~199만원	1,809(42.3)
	오세아니아주	92(2.1)		200~299만원	615(14.4)
	아프리카	52(1.2)		300~399만원	229(5.4)
	남아메리카	11(0.3)		400~499만원	87(2.0)
기타(국적미상 등)	82(1.9)	500만원 이상	86(2.0)		
연령*	20세 이하	5(0.1)	배우자 연령	20세 이하	346(8.1)
	21~30세	344(8.0)		21~30세	413(9.6)
	31~40세	1,627(38.1)		31~40세	1,654(38.7)
	41~50세	1,367(32.0)		41~50세	1,109(25.9)
	51~60세	550(12.9)		51~60세	499(11.6)
	61세 이상	382(8.9)		61세 이상	254(5.9)
학력*	무학	27(0.6)	배우자* 학력	무학	36(0.8)
	초졸	189(4.4)		초졸	223(5.2)
	중졸	821(19.2)		중졸	739(17.3)
	고졸	1,518(35.5)		고졸	1,603(37.5)
	대졸	1,237(28.9)		대졸	1,110(26.0)
	대학원졸	445(10.4)		대학원졸	253(5.9)
	무응답	38(0.9)		무응답	311(7.2)
직업	서비스	301(7.0)	배우자 직업	서비스	575(13.5)
	판매	260(6.1)		판매	142(3.3)
	농림어업	360(8.4)		농림어업	16(0.4)
	기능직	319(7.5)		기능직	98(2.3)
	기계조작조립	142(3.3)		기계조작조립	94(2.2)
	가사관련 단순노무	21(0.5)		가사관련 단순노무	90(2.1)
	기타 단순노무	262(6.1)		기타 단순노무	213(5.0)
	사무	253(5.9)		사무	123(2.9)
	전문가	527(12.3)		전문가	413(9.7)
	임직원관리자	111(2.6)		임직원관리자	19(0.4)
	기타	350(8.2)		기타	238(5.6)
없음	694(16.2)	없음	1,689(39.5)		
한국 거주 기간	1년 이하	217(5.1)	결혼 지속 연수*	1년 이하	331(7.7)
	1~5년	1,526(35.7)		1~5년	1,720(40.2)
	6~10년	1,364(31.9)		6~10년	785(18.4)
	11~20년	674(15.8)		11~20년	494(11.6)
	21~30년	39(0.9)		21~30년	157(3.7)
	30년 이상	455(10.7)		30년 이상	131(3.1)
한국에 온 목적	결혼	1,220(28.5)	자녀수*	없음	1,856(43.4)
	취업	1,129(26.4)		1명	166(27.3)
	친척방문	631(14.8)		2명	527(12.3)
	사업, 업무	534(12.5)		3명 이상	165(4.8)
	유학	170(4.0)			
기타	485(11.3)				

*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임.

표 2.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전체	2.39	1.28	1-5
	말하기	4.17	1.71	
한국어 능력	읽기	4.14	1.76	1-5
	쓰기	2.53	1.26	
	전체	3.61	1.58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4.39	0.79	1-5
	자녀	4.54	0.67	
	배우자 부모	4.20	0.87	
	배우자 형제자매	4.10	0.88	
	전체	4.30	0.80	

성들이 여성들보다 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성경과 최연실(2006)의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와 안연주와 최연실(2009)의 우리나라 농촌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은 전체 평균 3.61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은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말하기가 4.17점, 읽기가 4.14점, 쓰기가 2.53점으로, 말하기와 읽기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쓰기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말하기’와 ‘읽기’능력은 매우 높지만, ‘쓰기’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김승권 외, 2010; 김현수, 최연실, 2012).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는 4.39점, 자녀와의 관계는 4.54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4.20점,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4.10점으로 나타났다. 관계별로 비교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이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데 반해, 배우자와의 만족도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2010; 김현수, 최연실, 2012).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표 3. 다문화가족 외국인남성의 가족상담 경험 유무의 전반적 경향 N=4,275

구분	n(%)
가족상담 경험	없음 3,238(75.7)
	있음 274(6.5)
	무응답 763(17.8)

경험 유무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이들 중 가족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5%이었고, 가족상담을 받은 적 없는 경우가 75.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경우 가족상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에 따른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에 따른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에 따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628, p<.001$). 출신국이 아시아인 경우, 기타 국가 출신과 중국-한족,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출신 외국인 남성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변인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tor)값이 10 미만인 1.1~3.7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델 1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모델 2는 한국어 능력을 투입하였으며, 모델 3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는 가족상담 경험유무를

표 4.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에 따른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대한 집단간 차이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평균(표준편차)	F	Duncan Test
아시아	중국-조선족(a)	1.89(1.20)	38.628***	fgeac/ibhd
	중국-한족(b)	2.54(1.37)		
	일본(c)	1.93(1.07)		
	기타(d)	2.63(1.43)		
출신국	북아메리카(e)	1.70(1.03)		
	유럽(f)	1.60(0.93)		
	오세아니아주(g)	1.67(0.99)		
	아프리카(h)	2.55(1.52)		
	남아메리카(i)	2.45(1.12)		

*** $p<.001$

표 6.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변인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응답자학력								
배우자학력								
월평균소득								
나이차이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한국어 능력								
말하기								
읽기								
쓰기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가족상담 경험 유무 ¹⁾								
R^2								
Adjusted R^2								
F								

* $p < .05$, ** $p < .01$, *** $p < .001$

가변수(dummy variable) - 1) 가족상담 경험유무 : 없음=0, 있음=1

추가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모델 1에서는 연령($\beta = -.17$, $p < .001$)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 및 배우자의 학력, 가족경제수준, 나이 차이, 결혼지속년수, 자녀

수는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5%였다.

모델 2에서는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한국어 능력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beta = -.18$, $p < .001$),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beta = -.09$, $p < .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에서 읽기, 쓰

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5%에서 4.3%로 0.8% 증가하였다.

모델 3에서는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B=-.18, p<.001$),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B=-.09, p<.05$)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는 배우자관계 만족도 ($B=-.17, 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관계의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수 중 연령, 배우자관계 만족도,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 순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3%에서 6.9%로 2.6% 증가하였다.

모델 4에서는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B=-.18, p<.001$),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B=-.09, p<.05$), 배우자관계 만족도($B=-.16, p<.001$)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족상담 경험 유무($B=-.18, p<.001$)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같은 크기로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관계 만족도,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 순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6.9%에서 8.3%로 1.4%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2010년 발표된 『전국다문화가족실

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변인과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다문화가족에 개입하는 보다 효과적인 상담활동의 방향 정립이나 특히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과 그 가족들을 위한 가족상담의 전략 개발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김현수와 최연실(2012)의 연구에서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약간 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이들은 결혼이민여성에 비해 연애혼이 많고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들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결혼이민여성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족상담서비스에 노출될 기회가 결혼이민여성보다 더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족상담에서의 내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도 이들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이 낮은 편이라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한국어능력은 중간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어능력 중 ‘말하기’와 ‘읽기’는 매우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쓰기’는 다른 능력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편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한국어교육을 많이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여성에게 편중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문화가족 내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왕한석, 양명희, 한건수, 20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이 균형 있게 향상되지만,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경우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다보니 다른 능력에 비해 ‘쓰기’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내 결혼생활에서 가장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문화 차이에 있고 이 문화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의사소통이라고 볼 때, 한국어 능력의 수준은 결혼생활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지지받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을 한다고 해도 한국어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측면이 바로 한국어능력일 것이며, 이는 현재 더 열악한 서비스 제공 수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에게 특히 더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에 대해서 관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10년 실시된 같은 자료인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수행한 김현수와 최연실(2012)의 연구에서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들(김민정, 2008; 김양희, 2007; 정혜실, 2007)에 비추어보면,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그들의 결혼이 한국인 여성과의 애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남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

에서는 결혼중개업자의 소개에 따라 다분히 상업적인 성격이 있는 결혼이 많이 이루어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보다는 외국인남성과 한국인여성 사이에 순수한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애혼이 많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경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6.5%만이 가족상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상담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중 필요성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박정운, 2009; 최연실, 2011), 특히나 남성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천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가족에 편중되는 현실이므로,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나 자녀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은 가족상담을 경험할 비율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에 따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북미, 유럽, 호주 출신의 남성들은 가족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남미, 아프리카와, 중국, 일본과 조선족을 제외한 동남아 출신 남성들은 가족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출신국 별로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기타 등(네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인도, 타이, 타이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경우에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는 일은 다문

화가족을 위한 상담전략의 개발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출신국에 따라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한다. 우선 한국인 여성과 결혼생활을 할 때 문화 차이를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조선족, 일본 출신 남성들은 다른 국가 출신보다 문화적응에 더 쉬워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온 외국인 남성들의 가족상담 필요성이 더 높은 이유는 이들의 문화적응이 더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점들이 결혼생활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한국인들의 타문화권에 대한 수용도이다. 주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서 온 외국인 남성들은 이주노동자들일 경우가 많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편견이 존재한다(정혜실, 2007). 따라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과 무시가 결혼생활을 해나가는 데도 관련이 되어 이들의 결혼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북미, 유럽, 호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서 갖는 호감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문화권에 노출될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국가 출신의 남성들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도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신국의 문제는 경제적 측면이나 계급적 상황이 작용하기도 한다. 동일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북미, 유럽, 호주 출신 국가의 남성들과 한국인여성이 결혼하는 것은 대부분 중간층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기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노동자 계층이나 하층의 결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덕남, 2011), 결혼생활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상담사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을 전개할 때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적인 이해와 개입 전략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연령,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외국인남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할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가족상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족상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초기 부부들이 갈등이 높으며 이혼율도 높은 것을 볼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생활의 경험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낮아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국생활을 하는데 있어 모국어나 같은 외국인이 아닌 이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문화차이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열쇠가 의사소통이라고 볼 때, 이러한 의사소통에서의 문제는 가족 내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해 보면, 한국어능력, 특히 ‘말하기’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이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에게도 보다 더 확장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중 주목해야 할 변인은 가족상담 경험 유무이다. 즉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 중 가족상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을 실시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인지도, 효과성, 접근성이라고 할 때(최연실, 2011), 가족상담의 경험은 인지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또 그 가족상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효과성 인식이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이 주변에 존재하는가는 중요한 조건을 형성한다고 보인다. 현재 다문화가족상담을 별도로 실시하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고 다문화가족상담의 대부분은 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시작됨과 더불어 시작하여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20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강기정, 강복정, 이무영, 2011; 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하지만 여기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

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가 된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다문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에 대한 가족상담을 위해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서의 가족상담은 대부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상담 복지서비스를 경험한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가족상담이 실시되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가족상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해체가족이나 문제가 극심한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상담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족상담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상담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고 방문상담 등의 방식을 다양화시켜 다문화가족이 가족상담을 친숙하게 체감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최연실, 2011). 그러므로 가족상담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 자신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상담의 수요자인 다문화가족들의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및 만

족도가 낮은 것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담당할 전문인력 인프라의 미흡이다(김유경, 2010).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복지서비스는 이주자 특성에 맞는 상담기법을 습득한 인력수요가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분야이나 상대적으로 양성과정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민무숙 외, 2009). 따라서 다문화가족상담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주자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영역별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상담의 경험이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이 가족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가족상담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다문화가족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등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지원을 위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혹은 사정이 유사한 다문화가족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0)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이 가족상담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다

른 관련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을 단순 응답방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척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전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전체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전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이후의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데서 그 기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환기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큼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사회가 그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였지만 실상 그 대상이 주로 결혼이주여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일변도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연구적 관심사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외국인 남성을 그 주요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연구대상의 확대를 도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가족문제를 상담하는 가족상담의 영역에서 접근한 것도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구의 빈틈을 메우는 하나의 시도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현실 인식을 도모하고, 개선 방안의 도출을 통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기정, 강복정, 이무영 (2011). 다문화가족상담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3), 225-245.
- 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체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연구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강유미, 신혜중 (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4), 1393-1410.
- 김경신 (2009). 다문화가족 사업평가 및 정책대안. 한국가족학회지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40.
- 김민정 (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 김양희 (2007). 남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유경 (2010).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5, 45-62.
- 김정현 (2010). 다문화가족 노부모-성인자녀 세대 관계를 중심으로 본 가족복지육구. 가족복지정책,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논문집, 28, 105-126.
- 김태호 (1995). 다문화주의 상담의 동향과 한국사회에서의 발전과제. 교육연구, 14, 231-246.
- 김현수, 최연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35-456.
- 노충래 (2011).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3(2), 7-231.
- 민무숙, 김이선, 이춘아, 이소영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II):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정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집, 7, 31-62.
-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 (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체계 개선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상담가이드북.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해경, 조순남 (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송기범 (2010).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문화적 역량과

-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집, 29, 40-69.
- 송미경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상담의 모색. 여성연구논총, 23, 41-51.
- 안연주, 최연실 (2009). 농촌 거주 기혼남녀의 가족상담 요구 조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7-48.
- 양명숙, 이혜선 (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족탄력성과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2), 431-445.
- 양승민 (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다문화가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여성가족부 (2006). 함께 가는 가족 2010. 서울: 여성가족부.
- 왕한석, 양명희,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 전라북도 입실군(및 순창군, 남원시) 일원 사례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 이덕남 (2011). 이주남성노동자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이선주, 양애경, 장미혜, 최현미, 송성실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국내 다문화연구와 다문화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연구, 10(3), 1291-1304.
- 장명선, 장은애 (2010).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보고서.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미혜, 김혜영, 정승화, 김효정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상기, 정윤수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229-255.
- 정혜실 (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성경, 최연실 (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35.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9(4), 817-846.
- 최연실 (2011).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의 현황분석 및 통합적 개선방안 탐색: 가족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61-93.
- 한재희 (2011).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

원고 접수일 : 2012. 12.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3. 2. 08.
게재 결정일 : 2013. 2. 12.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for the Need of Family
Counseling among Foreign 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Korean Proficiency,
Level of Satisfaction for Family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with Family Counselling**

Cho, Yun-Joo

Choi, Youn-Shil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set out to examine factors which influence foreign m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perceived need for family counselling to propose directions for family counselling support for them and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the National Survey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nducted in 2010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actors which influence their perceived need for family counselling were examined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Korean proficiency, level of satisfaction for family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with family counselling for the sample of 4,275 foreign 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made up of three par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foreign men's perceived need for family counselling was low overall. Also, subjects who have received counselling perceived higher than mid-level need for counselling. Second,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ir perceived need for family counselling according to the foreign men's native countries. Foreign men from North America, Europe and Australia reported low perceived need for family counselling while those from South America, Africa, China and the Southeast Asia showed high level of perceived need for family counselling. Third, the younger foreign 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the higher desire for counselling they indicated. It was also found that lower their level of Korean speaking, the less satisfactory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and the ones who received family counselling before, the higher their perceived need for counselling. The results confirmed the significant of the foreign men's perceived ne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unselling.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foreign men, family counseling, multicultural counseling